

李濟馬의 難治病에 對한 視角에 關한 研究

張賢鎮*

A study on Intractable disease in the sight of Lee Je Ma.

Hyun Jin Jang

Korea. Jang Hyun Jin O.M.P, ph.D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Lee Je Ma (1837~1900) wrote the DongEuSuSeBoWon in 1894. Constitutional Medicine what is called Sasang Medicine has originated from him. In this book he refers to mild, serious, intractable, incurable and fatal disease. In the sight of his Medical theory each state of disease deserves to be researched.

1. In the case of Soumin exhaustion of Yang, Taeyang-Kwolum, noxious Yin, Yang is kept in the exterior by excessive Yin in the interior, middle diabetes and swelling belong to intractable disease and solid mass in the right epigastric zone belongs to fatal disease.

2. In the case of Soyangin exhaustion of Yin, lower diabetes, afternoon fever due to deficiency of Yin, spitting blood and swelling belong to intractable disease and distention of abdomen with gas or fluid belongs to fatal disease.

3. In the case of Taeumin syncope due to chills, dryness-heat, diabetes, pain of chest and abdomen and swelling belong to intractable disease and apoplexy with closed eyes belongs to fatal disease.

4. In the case of Taeyangin vertebral disease makes flaccidity of lower limbs and dysphagia with vomiting of frothy fluid belongs to fatal disease.

* 대전대학교 사상의학과

I. 緒 論

東武 李濟馬는 病證을 설명함에 있어서 輕證 重證 危證 險證 등 각 증후에 따른 질병의 정도를 달리 표현하고 있으며 각 사상인의 병증에 따른 구분의 전제로 性情의 변화가 病證의 변화에도 관여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다.

性情이 주요한 요소로 이해되는 바탕에는 사상인 구분의 기본적 기준에 성정이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이며 健康 狀態에 대한 규정과 疾病 狀態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성정은 매우 주요한 병증 이해의 指標가 되는 것이다. 性情과 體質, 體質과 病證, 病證과 藥理 및 攝生이라는 연계 속에서 우리는 사상인의 건강과 질병 그리고 섭생에 대한 기준을 추론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難治病에 대한 시각도 이제마의 병증관에 의하여 재고해 보아야 옳을 것이며 결국 난치병도 體質病證論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해석 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東醫壽世保元을 중심으로 性情, 體質, 病證과 難治病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제마의 난치병에 대한 시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李濟馬와 四象醫學(體質醫學)

(1) 李濟馬 (1837~1900)

- 1894年 東醫壽世保元 著述
- 四象醫學 (體質醫學) 創案

(2) 四象醫學 特徵

- 體質-性情-病證-藥理-養生 相互 連繫
- 性情偏急-心身安靜破壞-疾病誘發-難治病

2. 體質과 性情

(1) 哀怒喜樂 性情

- 哀氣=直升 • 怒氣=橫升
- 喜氣=放降 • 樂氣=陷降

(2) 四象人 區分

太陽人

肺大 耳聽天時 哀性遠散

肝小 怒情促急

少陽人

脾大 目視世會 怒性宏抱

腎小 哀情促急

少陰人

腎大 口味地方 樂性深確

脾小 喜情促急

太陰人

肝大 鼻嗅人倫 喜性廣張

肺小 樂情促急

3. 性情과 病證

(1) 哀怒喜樂의 順動

- ① 哀怒之氣 上升 陽也 順動則 發越而上騰 順而上升
- ② 喜樂之氣 下降 陰也 順動則 緩安而下墜 順而下降

(2) 哀怒喜樂의 逆動

- ① 哀怒之氣 暴發而 竝於上也 上升之氣 逆動而竝於上則 肝腎傷
- ② 喜樂之氣 浪發而 竝於下也 下降之氣 逆動而竝於下則 脾肺傷

(3) 逆動分類

- ① 哀怒相成 喜樂相資에 의한 逆動의 初期段階
- ② 哀怒相成 喜樂相資에 의한 逆動의 末期段階
- ③ 情氣의 暴發, 浪發에 의한 逆動
- ④ 不出於眞情으로 益偏하여 逆動

(4) 四象人 性情의 逆動 分類

太陽人

- ① 哀性極則怒情動
- ② 哀極不濟則忿怒激外
- ③ 暴怒必在於黨與 肝傷
- ④ 喜樂虛動 哀怒益偏

少陽人

- ① 怒性極則哀情動
- ② 怒極不勝則悲哀動中
- ③ 暴哀必在於居處 腎傷
- ④ 喜樂虛動 哀怒益偏

少陰人

- ① 樂性極則喜情動
- ② 樂極不成則喜好不定
- ③ 浪喜必在於交遇 脾傷
- ④ 哀怒虛動 喜樂益偏

太陰人

- ① 喜性極則樂情動
- ② 喜極不服則侈樂無厭
- ③ 浪樂必在於事務 肺傷
- ④ 哀怒虛動 喜樂益偏

(5) 健康狀態와 疾病狀態

① 四象人의 健康狀態

- 李濟馬가 提示한 健康狀態란?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喜怒哀樂發而皆中節 謂之和”
- * 喜怒哀樂의 中和狀態

② 四象人의 疾病狀態

- 各 體質別 特性에 따른 性情의 逆動으로 中和를 벗어난 狀態
- “性情이 크게 逆動하면 10年 동안 回復하기 어렵다”

③ 同時의 狀態 觀察

- 個體特性, 時間, 邪氣와 心慾의 強弱에 따른 同時의 狀態 觀察
- 初證 中證 末證 危證 險證 輕證 重證 大病 易治 難治 逆證 順證 死症 등으로 區分 說明하고 있다.

(6) 四象人 體質病證

恒心(完實無病) — 恒心尤甚證(大病) — 性情偏急(重病)
 平素性情 性情逆動 性情逆動甚化

① 少陰人

(恒心,完實無病)	(恒心尤甚證,大病)	(性情偏急,重病)
不安定之心 —	咽喉證虛汗泄瀉 —	喜好不定
飲食善化	飲食不化	泄瀉不止
		臍下必如氷冷

② 少陽人

(恒心,完實無病)	(恒心尤甚證,大病)	(性情偏急,重病)
懼心 —	恐心(健忘) —	悲哀動中
大便善通	大便不通	大便不通則
		胸膈必如烈火

③ 太陰人

(恒心,完實無病)	(恒心尤甚證,大病)	(性情偏急,重病)
怯心 —	怕心(怔忡) —	侈樂無厭
汗液通暢	陽強堅密	裡病則小腸之中
		焦窒塞如霧

④ 太陽人

(恒心,完實無病)	(恒心尤甚證,大病)	(性情偏急,重病)
急迫之心 —	8~9日大便不通 —	忿怒激外
	口中多出沫	噎膈則胃脘之上
		焦散豁如風

4. 李濟馬의 視角에서 본 難治病

李濟馬의 視角으로 볼 때 疾病에 대해서 四象醫學의 體質病證으로 區分하여 對應하지 않으면 危證이나 險證으로 傳變되어 初期輕證을 難治病으로 물고 갈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疾患은 각기 나름의 體質病證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難治病도 다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慢性疾患에서 性情의 調和와 調節은 氣의 益偏을 막아 自生力을 키워주게 되므로 難治病 治療大綱으로서 중요하다.

(1) 少陰人 體質病證에서의 難治病 研究

表病	
順證	逆證
鬱狂證	亡陽證
初證 中證 末證	初證 中證(末證)
	(太陽厥陰證)
(治法) 升陽益氣	

裡病	
順證	逆證
太陰證	少陰證
(太陰陰毒證)	(陰盛格陽證)(藏結)
	(食消浮腫證)
(治法) 裡陰降氣	

예1) 少陰人 表病 亡陽證 末證 眞陽脫之 脾絕之候: 가장 虛損한 部位인 脾局의 陽氣가 끊어져 가는 매우 어려운 狀況의 病證이며 少陽人의 亡陰證과 비교되어 體質病證論의 概念을 理解하는데 좋은 보기가 된다. 少陰人이 평소 勞心焦思하면 그 哀怒氣가 喜樂氣를 益偏케 하여 더욱 陷降시키므로 發病된다.

[治方] 황기계지부자탕等

예2) 少陰人 表病 亡陽病 太陽病厥陰證: 太陽病

厥陰證은 外感 初證에서 바로 手足厥逆한 경우로서 과거 張仲景 傷寒論에서 承氣湯으로 5生1死할 만큼 위급한 病證이다. 傷寒에 正邪相爭하다 不解하여 傳變한 것이다.

[治方] 삼유탕等 [豫防] 황기계지탕, 팔물탕等

예3) 少陰人 裡病 太陰病 陰毒證: 陰毒證은 6~7일이되면 死境에 이르는 病證이다.

[治方] 인삼부자이중탕等

예4) 少陰人 裡病 少陰病 陰盛隔陽證: 少陰人 裡病 中 藏厥證과 함께 陰寒之氣가 極에 달한 위험한 病證으로서 煩躁 下利黑水 3日以上하면 治療가 어렵다.

[治方] 오수유부자이중탕等

예5) 少陰人 食消 浮腫證: 少陰人이 飲食倍常하고 口味甚甘 한 후 불과 1個月만에 浮腫이 오고 死하였다.

[治方] 危證으로서 急히 芎藭蘇理中湯을 써야 한다.

예6) 少陰人 藏結病: 少陰人 心下右邊이 結硬된 藏結病은 回生치 못하고 死한다. 表陽溫氣가 모두 끊어진 病證이다.

(2) 少陽人 體質病證에서의 難治病 研究

表病	
順證	逆證
少陽傷風證	(亡陰證)
(治法) 表陰降氣	
裡病	
順證	逆證
胸膈熱證	陰虛午熱證
	(下消) (吐血)(浮腫)
	(鼓脹)(纏喉風)
(治法) 清陽上升	

예1) 少陽人 表病 亡陰證: 少陰人의 亡陽證이 少

陰人 體質病證의 脫陽證이라면 少陽人의 亡陰證은 脫陰證이며 滿陰이 장차 없어지려는 危急한 病證이다.

[治方] 淸心散 淸心散 淸心散

예2) 少陽人 裡病 下消 陰虛午熱證 : 表裡陰陽俱虛 損한 病證으로서 10名中 6~7名만이 살아날 수 있다. 攝身을 잘하며 正성것 服藥하지 않으면 死한다.

[治方] 獨活지황탕 십이미지황탕等

예3) 少陽人 吐血 中風 : 少陽人 吐血 中風은 調養이 服藥보다 重要하며 重證 險證에 속한다. 淡食 服藥하고 修養如釋道해야 한다.

예4) 少陽人 鼓脹 : 少陽人이 中消에 腹脹하면 鼓脹이라 하는 데 不治이다. 裡淸氣가 끊어진 것이다.

예5) 少陽人 纏喉風 : 咽喉內에서 發하여 項頰 밖으로 腫脹된 것을 纏喉風이라 하는데 2~3일 내에 殺人最急이다.

(3) 太陰人 體質病證에서의 難治病 研究

表病	
順證	逆證
太陽寒厥證 (長感病)	肺虛寒證
(治法) 肺陽上升	
裡病	
順證	逆證
肺燥熱證	燥澀便閉證
(消渴證)(浮腫病)(中風)	
(治法) 淸肝燥熱	

예1) 太陰人 表病 寒厥證 不發熱 不汗出者 : 勞心 焦思후에 胃腕이 衰弱해지고 客勝主弱하여 重證이 된것으로 不發熱 不汗出하면 死한다.

[治方] 응담산, 한다열소탕+계조 5~7개 等

예2) 太陰人 裡病 肝燥熱證 消渴病 :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太成 肺燥太枯하여 生한다. 安心滌慾 1

百日하며 用藥하여야 治療된다.

[治方] 열다한소탕+고본 대황 等

예3) 太陰人 浮腫病 : 勞心焦思 屢謨不成한 것으로 蕩滌慾火 恭敬其心하며 用藥하여야 治療가 可能하다.

[治方] 건울계조탕 等

예4) 太陰人 中風 眼合者 : 中風患者 중에 그 程度가 심한 자는 다수가 死亡한다.

[治方] 應急處置를 目的으로 刮匙산이나 淸심환 等を 쓰게 된다.

(4) 太陽人 體質病證에서의 難治病 研究

表病	裡病
逆證	逆證
(解休證)	(噎膈證)
(治法) 補肝生陰	(治法) 呼散之氣抑制

예1) 太陽人 表病 解休證 : 肝腎에 熱中 亡血하여 건지를 못한다.

[治方] 必戒深哀 遠嗔怒 修淸定이후에나 病이 낫는다.

오가피장척탕

예2) 太陽人 裡病 噎膈證 : 裡病 小腸病 噎膈證中 口中吐沫하는 것은 死證이다.

[治方] 遠嗔怒 斷厚味한 후에나 治療가 가능하다. 미후등식장탕

Ⅲ. 結 論

1) 李濟馬의 難治病에 對한 視覺은 體質病證論을 基礎로 理解되어 질 수 있으며 이는 體質-性情-病證-治療-養生으로의 연결선상에서 性情逆動의 益偏이 難治病의 主要要因으로 作用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少陰人病證에서 亡陽證, 太陽厥陰證, 陰毒證,

陰盛格陽證, 食消浮腫證 등은 難治病에 分類될 수 있고 藏結證은 死證에 속한다 하였다.

3) 少陽人病證에서 亡陰證, 下消, 吐血證, 浮腫 등은 難治病에 分類될 수 있고 鼓脹證은 死證에 속한다 하였다.

4) 太陰人病證에서 寒厥證 無汗者, 燥熱 消渴證, 胸腹痛證, 浮腫 등은 難治病에 分類될 수 있고 中風 眼合으로 甚者는 死證에 속한다 하였다.

5) 太陽人病證에서 解休證, 噎膈證은 모두 難治病에 分類될 수 있고 噎膈時 口中吐沫者는 死證에 속한다 하였다.

6) 各 體質病證에 對한 治法의 基礎로서 性情偏急의 警戒을 강조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2. 宋一炳: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對한 研究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6. No. 1. 1994
p71~77